

# 의미역할과 통사범주

양 우 진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 차 례

1. 서론 : 지배-결속 이론의 이론적 배경
  - 1.1. 생득적 언어능력으로서의 보편문법
  - 1.2. 보편문법의 구성
  
2. 의미역 이론 (Theta theory)
  - 2.1. 성분통어와 지배
  - 2.2. 논항구조
  - 2.3. 의미역 기준
  - 2.4. 투사원리
  
3. 핵계층 이론 (X-bar Theory)
  - 3.1. 평구조와 계층구조
  - 3.2. 핵계층 식형
  - 3.3. 핵계층 이론과 S/S'
  - 3.4. 핵계층 이론과 문장의 중의성
  
4. 결론

## 1. 서론 : 지배-결속(GB) 이론의 이론적 배경

### 1.1. 생득적 언어능력으로서의 보편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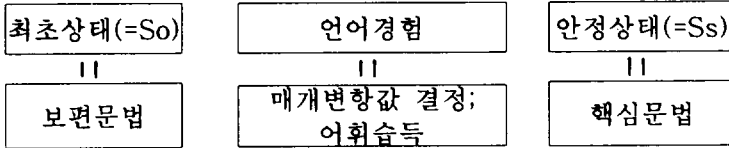
Chomsky(1981) LGB로 시작된 GB이론은 생성문법의 한 단계로 인간은 누구나 유전적으로 결정된 언어능력 또는 언어기능(genetically determined language faculty)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생득적 언어능력 즉 보편문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처럼 인간이 언어능력/보편적 문법을 공유한다고 가정하면 인간의 언어(자연어)<sup>1)</sup>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언어는 인간 마음/정신의 거울("Language are the best mirror of the human mind")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편문법을 명시적 즉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GB이론(=생성문법)은 결국 인간의 본성을(the nature of human mind) 규명하려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보편문법은 인간 언어능력의 발전에 있어서 최초 단계(Initial State =  $S_0$ )이다. 인간의 생득적 재능(innate capacity)인 보편문법은 규칙체계 및 원리체계로 이루어지며 또한 값이 결정되지 않은 매개변항(parameters)을 포함하는데 아래 (1)이 보여주듯이 적절한 언어환경(linguistic environment)이 주어지면 이러한 매개변항의 값이 결정되고 안정상태(Steady state =  $S_s$ )인 개별언어의 문법 즉 핵심문법(Core Grammar)으로 발전한다. 핵심문법은 따라서 매개변항의 값이 결정된 보편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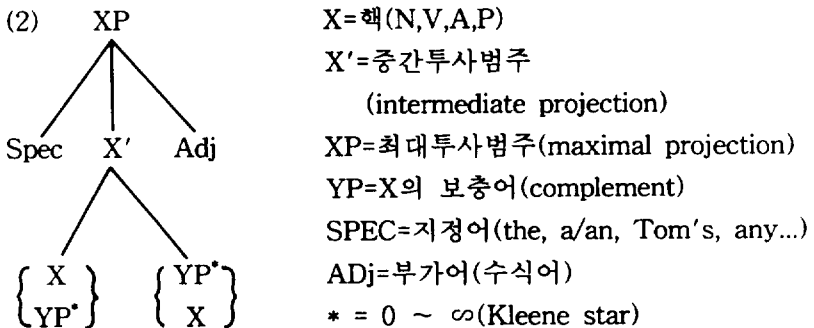
---

1)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는 예를 들어 인공어(artificial language)와 구별된다. 인공언어인 분자식  $H_2O$ 는 어느 인간의 언어 공동체(human speech community)에서건 공통적(universal)이나, 자연언어의 경우 언어 공동체에 따라 다르게 (즉 영어에서는 "water", 한국에서는 "물")표현된다. 이처럼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만 특별한(particular) 언어, 즉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등을 자연언어라 한다.

(1) 언어기능의 성장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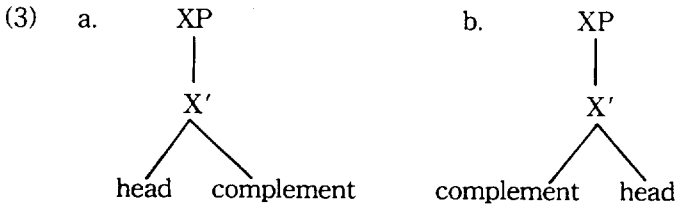
개별 언어들이 표면상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편문법의 매개변항들이 언어경험을 통해 서로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핵(head)과 보충어(complement)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현대 언어학에서는 4개의 주요 문법 범주(NP, VP, AP, PP)를 인정하는데, 이들 통사 단위들(syntactic units)은 각각 핵심이 되는 요소인 핵(N, V, A, P)를 포함하고 있다. 핵인 N, V, A, P, 는 각각 구범주인 NP, VP, AP, PP로 최대 투사된다<sup>2)</sup>. 이들 핵들은 식형(X-bar schema)(2)상에서 하나의 보충어를 자매 절점(sister node)으로 택할 수 있다.



핵과 보충어 사이의 선·후관계는 핵-보충어 매개변항(head parameter)으로 설명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가 영어라는 환경에

2) 통사범주 NP, VP, AP, PP는 각각의 핵인 N, V, A, P의 성격이 미치는 (또는 투사되는)범주이므로 내심적 구조(endocentric structure)를 갖는다고 한다.

노출이 되면 (3a)처럼 매개변항은 핵이 보충어를 선행하는 head-initial이라는 값을 갖게되고 한국어라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3b)처럼 보충어가 핵을 선행하는 head-final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를 핵심문법이라 한다.



이처럼 핵 매개변항의 값이 결정된 핵계층 식형(3)은 다음과 같은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를 적절히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 (4)<sup>3)</sup> a. [NP the [N' [N book ][PP on the table ] ] ]  
           [NP [N' [PP 책상 위의 ] [N 책 ] ] ]  
 b. [VP [V' [V like ] [NP the book ] ] ]  
       [VP [V' [NP 책을 ][V 좋아하다 ] ] ]  
 c. [AP [A' [A proud] [PP of John ] ] ]  
       [AP [A' [PP 존에 대해] [A 자랑으로 여기는 ] ] ]  
 d. [PP [P' [P in] [NP the house ] ] ]  
       [PP [P' [NP 집] [P 에서 ] ] ]

(4a ~ d)는 각각 명사구 NP의 핵인 N은 전치사구 PP를 보충어로 취하고 동사구 VP의 핵인 V는 명사구 NP를 형용사구 AP의 핵인 A는 전치사구 PP를 전치사구 PP의 핵인 P는 명사구 NP를 보충어로 취함을 보여 주는데 (4)의 영어와 한국어의 예들은 결국 두

3)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수형도(tree diagram)와 문법 표시 불은 괄호(labelled bracketing)가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표지 불은 괄호를 사용한다.

언어간의 구조적 차이는 핵과 보충어의 선행관계뿐만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즉, 영어의 경우 핵이 모든 문법범주에 있어서 보충어의 왼쪽에 나타나고 한국어의 경우 핵이 항상 오른쪽에 나타나는 언어임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적절한 언어환경을 경험하므로써 결정되는 보편문법의 매개변항에 대해 핵 매개변항을 예로 들어 논의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편문법의 매개변항의 값이 결정된 단계인 핵심문법은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하자.

핵심문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실재언어의 이전 상태로서 마음속에 내재된 언어(I(nternalized)-language)이며 여전히 언어능력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핵심문법은 개별언어의 핵심적인 문법원리를 포착해주는 단계일 뿐이어서 개별언어의 실제 형태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내재된 언어가 실재언어(Actual language) 즉 외재적 언어(E(xternalized)-language)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적 요인들(marked peripheries) 즉 개별 언어에 독특한(language-specific) 단어형태, 불규칙한 예외현상들, 지역방언 및 개인방언과 같은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핵심문법은 생성문법의 연구대상이다. 말하자면 생성문법은 핵심문법을 통해서 보편문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이 언어 그 자체 즉 외재적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kuno를 중심으로 한 기능통사론(Functional syntax)<sup>4)</sup> 이 언어의 자립성들 부정하고 언어외적 요소를 중시한 반면 생성문법은 언어외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여 순수 언어 자체 즉 내재적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sup>5)</sup>

4) 언어는 자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문장의 집합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추상적 체계가 아니라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보는 통사론이다. 프라그 언어학과(Linguistic Circle of Prague)에서 시작되었으며 기능문법에서는 kuno가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고 있다. 기능통사론에서는 화자의 신념이나 태도, 화용론적 요소 및 인지 또는 지각상의 원리들이 통사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둔다.

5) 현대에 와서 물리학에서는 애매모호한 것을 이론화(Fuzzy theory)하고 돌출현상

## 1.2. 보편 문법의 구성

보편 문법은 상호작용을 하는 하위 부문, 즉 규칙 체계와 원리체 계로 이루어지며 규칙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어휘부(Lexicon), 통사부(Syntax), 해석부(Interpretive components)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통사부는 기저부(Base component)와 변형부(Transformational component)로 나뉘고 해석부는 음성형태부(PF component)와 논리 형태부(LF component)로 나뉘어진다.

(5) 규칙체계(Rule systems) (Chomsky, 1982)

(A) 어휘부(Lexicon)

(B) 통사부(Syntax):(i) 기저부(Base component)

(ii) 변형부(Transformational component)

(C) 해석부(Interpretive components):

(i) 음성형태부(PF compon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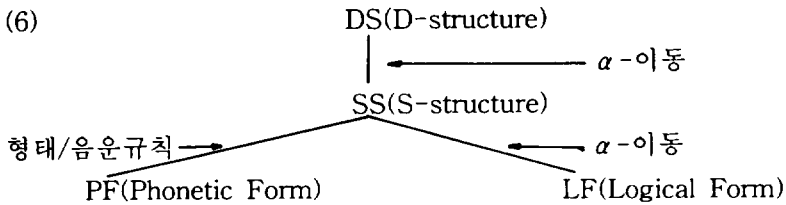
(ii) 논리형태부(LF component)

어휘부에는 각 어휘항목들 고유의 특징들(즉 음운정보, 통사정보, 의미정보, 그리고 형태정보)이 기재되며, 기저부의 규칙들은 심층구조인 DS(D-structure = Deep structures)를 생성하는데 이때의 DS는  $\alpha$ -이동이 적용되지 않아 의미역(theta ( $\theta$ ) role)이 그대로 표시된 순수의미역구조(pure  $\theta$ -structure)이다. DS에 변형부 규칙인  $\alpha$ -이동("Move anything anywhere")이 적용되면 통사구조 SS(S-structure=syntactic structure)가 나오는데 이 구조에는 이동된 요소의 흔적이 반드시 표시된다. 따라서 SS는 보강된 DS("enriched DS")이라 한다. SS는 논리형태부 LF(Logical Form)와 음성 형태부 PF(Phonetic Form)의 입력이 된다. 즉 SS에 눈에 안

---

이 생기는 원인을 조사하고자 하는 이론(chaos theory)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생성문법에서는 언어에 있어서의 돌출현상들(marked peripheries)은 핵심문법에 속하지 않는 예외적 현상들로 학문적 연구가치가 없다고 본다.

보이는(non-overt)  $\alpha$ -이동이 적용되면 추상적인 구조인 논리형태 LF가 도출되고 음성형태부 PF의 규칙인 형태 및 음운규칙이 적용되면 음성형태가 얻어진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다음 (6)처럼 표현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DS와 SS는 통사부이며 이 부분은 해석부문인 음성형태와 논리형태(즉 의미형태)와 독립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GB 이론은 자립통사론(autonomous syntax)을 주장한다. 그리고 통사부는 다시 음성형태 PF와 논리형태 LF의 입력이 되므로 이들 해석부는 결과적으로 통사부에 의존적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지배-결속 이론은 통사론 중심의(Syntax-centered)문법 이론이기도 하다.

(5)의 규칙체계와 다음 (6)의 원리체계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작용을 한다.

(6) 원리체계(Systems of Principles)

- a. 핵계층이론 ( X' theory)
- b. 지배이론 (Government theory)
- c. 의미역이론 (Theta theory)
- d. 격이론 (Case theory)
- e. 결속이론 (Binding theory)
- f. 한계이론 (Bounding theory)
- g. 통제이론 (Control theory)

(Chomsky(1982b))

위의 원리체계들 역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말하자면 한 구문의 현상을 여러 일반 원리들을 적용하여 조합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sup>6)</sup>, 이러한 의미에서 지배-결속 이론은 조합문법("GB is modular")이라 한다. 지배-결속 이론의 조합적 특성은 종래 생성문법의 다양한 변형규칙들을  $\alpha$ -이동으로 축소·통합시켜 문법의 설명력(explanatory power)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지배결속이론은 인간의 정신/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생득적 언어능력을 규명, 연구하는 이론인데 본 논문에서는 지배결속이론의 핵심이 되는 의미역할과 통사범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2. 의미역 이론(Theta Theory)

### 2.1. 성분 통어(C-command)<sup>7)</sup>와 지배 (Government)

GB이론(즉, 의미역 이론, 격 이론, 결속 이론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배의 개념은 보다 원초적인(primitive) 개념인 성분 통어로 정의된다.

- (1)  $\alpha$ 가  $\beta$ 를 성분 통어하려면,
  - a.  $\alpha$ 는  $\beta$ 를 관할하지 않고
  - b.  $\alpha$ 를 관할하는 모든  $\gamma$ 는  $\beta$ 역시 관할해야 한다.
- (2)  $\alpha$ 가  $\beta$ 를 지배하려면,

6) 예를 들어  $\alpha$ -이동(Move anything anywhere)으로 잘못된 문장이 나와도 원리체계(예를 들면, 하위인접조건)에 의해 여과될 수 있다. 즉  $\alpha$ -이동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문장까지 과생성(over-generation)할 수 있다.

i) \*Who<sub>i</sub> [<sub>s</sub> did [<sub>NP</sub> pictures of t<sub>i</sub>] please you]?

Chomsky(1973)의 하위인접조건에 의하면 '어떤 요소도 두 개이상의 순환절점을 넘어서 이동할 수 없다'(영어의 순환절점:NP,S)그런데 이 문장은 of의 목적어인 Who<sub>i</sub>가 NP와 S를 모두 넘어 이동하여 한계이론(즉 하위인접조건)에 의해 잘못된 문장으로 판명된다.

7) C-command는 constituent-command를 말한다.~



- a.  $\alpha$ 는  $\beta$ 를 m-통어(m-command)하고
- b.  $\alpha$ 와  $\beta$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있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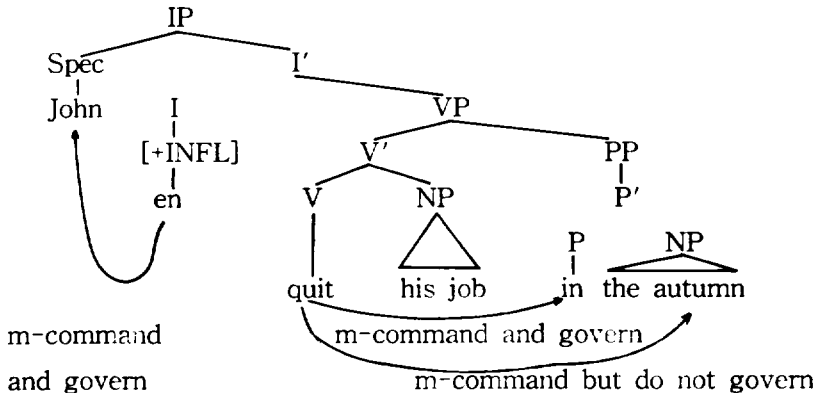
Chomsky (1986)

위의 정의(1)에서는  $\gamma$ 는 첫번째 분지 절점(first branching node)인 중간투사범주 X'이 될 수도 있고 최대투사범주 XP가 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로 해석되면 (1)은 Reinhart(1976)의 성분 통어(strict C-command)가 되고 후자의 경우로 해석되면 Aoun & Sportiche(1983)의 성분 통어가 되는데, Chomsky는 Aoun & Sportiche의 성분 통어를 편의상 m-통어라하여 지배의 정의에 포함시킨다.

지배에 대한 장벽(barriers)이 될 수 있는 범주는 최대투사범주(CP, IP, NP, VP, AP, PP)이며, 지배자(governer)는 N,V,A,P, [+INFL]과 같은 핵(Head)이 된다. 그런데 이들 6개의 최대투사범주 중에서 IP는 그 자체로 장벽이 못되고 자신을 직접 관할하는 최대투사범주가 있을 때 그것을 장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IP는 따라서 결함 범주(defective category)라 한다.

지배의 정의 (2)와 관련하여 다음 문장을 살펴 보자.

(3) John quit his job in the autumn.



(3)에서 동사 quit와 전치사 in은 각각 보충어 his job과 the autumn을 m-통어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장벽인 최대투사범주가 없으므로 지배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동사 quit는 부가어 PP를 m-통어하며, 그 사이에 장벽이 없으므로 또한 지배한다. 그러나 quit는 PP에 관할된 the autumn을 m-통어하면서도 지배하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는 V(quit)의 최대투사범주 VP와 명사구 the autumn사이에 PP가 장벽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IP의 핵인 I(NFL)이SPEC을 관할하지 않고, I를 관할하는 최대투사범주 IP는 SPEC을 m-통어한다. 그리고 I와 SPEC사이에는 어떤 최대투사범주도 없다. 따라서, I는 SPEC을 지배한다.

## 2.2.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

논항 구조라 함은 주어진 어휘 항목이 하위범주화하는 논항(=지시적 표현)의 목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imitate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술어(two-place predicate)이고 stumble은 하나의 논항을 요구하는 술부(one-place predicate)로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a. Maigret imitates Poirot.

b. I(m, p)

(5) a. Maigret stumbled.

b. S(m)

(4), (5)에서 대문자 I와 S는 각각 imitate와 stumble의 머릿글자를 따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된 술어가 요구하는 소괄호의 논항 목록이 곧 그 술어에 대한 논항 구조가 된다.

형식 논리학의 기본적인 생각을 이용하면 모든 술어에는 반드시 그 나름의 논항 구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kill을 예로 들면, 화

자가 동사 kill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동사가 몇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생득적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kill은 (6)이 보여주듯이 주어로서 행위자(Agent) 의미역과 목적어로서 수동자(Patient) 의미역을 갖는다.

(6) Maigret killed Poirot.

[Agent]	[Patient]
NP	NP

kill의 행위자와 수동자를 자신의 의미역 구조(thematic structure)로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곧 Chomsky(1986a: p.87)의 “범주에 대한 전형적 구조 실현”(structural realization of category==CSR)에 의해 명사구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sup>8)</sup> 따라서 범주 선택(C(ategorial)-selection)은 의미역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잉여적이어서 어휘 목록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 2.3. 의미역 기준(Theta Criterion)

모든 논항은 반드시 하나의 의미역을 (즉, Agent, Patient, Instrument 등의 의미적 역할)을 가져야 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술어(predicate)가 가지고 있는 의미역은 반드시 문항에 방출(discharge)되어야 한다.

---

8) 의미적으로 선택된 (S(ematic)-selection) 범주의 통사적 범주를 결정짓는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cf. Chomsky(1986a), Chomsky & Lasnik(1991).
- a. CSR(Patient)=NP
- b. CSR(Agent)=NP
- c. CSR(Location)=PP
- d. CSR(Action)=VP
- e. CSR(Proposition)=CP/NP~

- (7) a. Maignret killed the burglar.  
 b. \*Maignret killed.  
 c. \*Maignret killed it(it=허사).  
 d. \*Maignret killed the burglar the cellar.

앞에서 얘기했듯이 kill은 주어로 Agent와 목적어로 Patient를 택하는 동사이다. (7a)의 경우 이와 같은 kill의 의미역 구조가 충족된다. 즉 보충어에 Patient 의미역을 할당하고 주어에 Agent 의미역을 할당하고 있어 맞는 문장이 된다. 반면 (7b)와 (7d)가 틀린것은 (7b)의 경우는 두 개의 의미역 중에 Agent만이 나타나고 (7d)의 경우는 오히려 kill이 할당할 수 있는 의미역은 둘인데 논항은 3개 (Maignret, the burglar, the cellar)여서 그 중 하나 즉 the cellar가 의역을 못 받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the cellar는 이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어떤 기능도 못하여 비문이 야기된다. 그러나 (7c)의 경우 (7b)와는 달리 kill의 보충어 위치에 허사 it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허사 it은 논항이 아니므로 kill의 Patient의 의미를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7c)는 kill의 Patient 의미역이 방출될 수 없어 (7b)와 마찬가지로 비문이 된다.

의미역 할당자는 어휘적 핵(N, V, A, P)이어야 하며 의미역 할당은 의미역 할당자가 논항을 지배(government)하기만 하면 가능하다.<sup>9)</sup>

의미역 할당자가 어휘적 핵인 경우 그 의미역은 의미역 할당자의 하위범주화된 논항 말하자면 보충어에 주어지는데, 이 경우를 핵이 독립적으로 의미역을 할당한다는 점에서 직접 의미역 표시 (direct  $\theta$ -marking)라 하며 이렇게 직접 의미역 표시되는 논항을 내재적 논항이라 한다. 반면 주어에 주어지는 의미역은 아래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 자체로 결정되지 않고 동사와 보충어에 의해 복

9) 어휘적 핵 또는 VP가 어떤 논항에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은 의미역 표시라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lpha$ 가  $\beta$ 를 의미역 표시하려면 (a)  $\alpha$ 는 어휘적 핵이거나 술부(VP)여야 하고 (b)  $\alpha$ 는  $\beta$ 를 지배해야 한다.

합적으로(compositionally) 결정된다. 이처럼 동사가 보충어와 결합하여 의미역을 할당하는 경우를 간접 의미역 표시(indirect  $\theta$ -marking)라 하고 간접적으로 의미역이 표시되는 논항을 외재적 논항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은,

- (8) a. John [broke his arm]  
       [Agent/Patient]  
       b. John [broke the window]  
       [Agent/Instrument]

break는 목적어로 어떤 요소가 오느냐에 따라 John에게 할당되는 의미역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break가 목적어로 his arm을 택할 경우 John에게 주어지는 외재적 의미역은 Patient가 되겠으나 고의적 행위가 들어간다고 해석해서 John이 받는 의미역을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 (8b)의 경우 John에게 할당될 있는 의미역이 Agent가 될 수도 있지만 Instrument의 의미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목적어의 종류에 따라 주어에 주어지는 의미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주어에 할당되는 의미역은 동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VP에 의해 결정됨을 뜻한다.

날씨의 it나 존재의 there(existential there)는 허사(=비논항)여서 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는 동사의 외재적 의미역이 할당되지 않는 곳이다. 아래 (9)에서 알 수 있듯이.

- (9) a. It rains.  
       b. There arrived a man.

(9a)의 날씨는 나타내는 동사 rain는 외재적 의미역 할당에 예외가 되는 동사이다. 주어 위치는 따라서 비의미역 위치가 되므로 논

항은 올 수 없고 DS에서 영 주어로 남았다가 SS에서 확대투사원리 또는 핵계층 식형에 의해 채워진다. (9b)의 arrive는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로 보충어에만 의미역을 할당하는 동사여서 주어 위치는 (9a)와 같이 외재적 의미역이 할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SS에서 허사 there는 [+INFL]에게서 격을 받고 arrive에 의해 의미역 표시된 a man과 연쇄를 이루어 논항 a man이 격과 의미역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미역 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류해 왔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논항은 반드시 하나의 의미역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의미역 기준에 의해 잘못된 문장으로 판별된다.

(10) 의미역 기준( $\theta$ -criterion)

- a. 각 논항은 오직 하나의 의미역만 가져야 한다.
- b. 각 의미역은 오직 하나의 논항에만 주어져야 한다.

Chomsky(1981b)

(11) a. John seems/ is believed [t to be honest]

b. \*John<sub>i</sub> tried [t<sub>i</sub> to win]

c. John<sub>i</sub> tried [PRO to win]

수동화된 동사(예 believe)와 seem과 같은 주어 인상 동사들은 보충어에만 의미역을 할당하고 주어에는 할당할 의미역이 없다. 따라서 이들 동사들의 주어 위치는 비논항 위치가 된다. (11a)에서 John은 보문절의 주어 위치에서 VP[be honest]로 부터 외재적 의미역을 받을 수 있으나 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SS에서 비의미역 위치이면서 논항 위치인 주어 위치로 인상(raising)되어 격을 받아야 한다. 이동된 John은 자신의 흔적과 연쇄(John<sub>i</sub> t<sub>i</sub>)를 할당하여 하나의 의미역과 격을 받아 논항으로서 적절히 인허(license)된다. 그러나 (11b)의 try는 두개의 의미역을(내재적 의미역과 외재적 의

미역) 가지는 동사이다. 따라서 John이 보문절에서 이미 [win]에게서 의미역을 받은 상태에서 주어 위치로 이동한다고 보면 John이 [win]과 [tried[t<sub>i</sub> to win]]에게서 의미역은 하나씩 별도로 할당받기 때문에 의미역 기준을 어기게 된다. 반면 (11c)처럼 보문절의 주어 위치에 PRO를 설정하면 그 PRO는 [win]이 할당하는 의미역을 받고 또한 자신은 내재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잠재논항으로서 인허된다. 그리고 [tried [PRO to win]]이 할당하는 외재적 의미역은 John에게 주어지고 John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의미역을 받지 않으므로 논항으로서 하나의 의미역을 가져 의미역 기준을 만족시키고 또한 [+INFL]로 부터 주격을 받으므로 가시조건도 만족시킨다.

다음 예를 보자.

- (12) a. \*The burglar +INFL [v<sub>P</sub> kill air].  
 b. The burglar +INFL [v<sub>P</sub> kill John].

kill은 두개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개의 논항이 필요하다. (12)의 두 문장은 모두 의미역이 할당될 수 있는 위치에 논항이 나타나고 있으나 (12b)는 옳은 문장인 반면 (12a)는 비문이 된다. 그 이유는 (12a)의 경우 명사구 air가 kill의 Patient를 받을 자격이 없어 Patient의 의미역이 적절히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항이 Patient 의미역을 가리기 위해서 동사 kill의 행위에 (12b)처럼 영향을 받아야(affected)하는데 air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명사구이므로 Patient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kill의 Patient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생물이다.

(10)의 의미역 기준과 관련하여 보충어 소절(complement small clause)을 보기로 하자.

- (13) a. We held [him responsible].  
 b. We made [him leave].  
 c. We consider [him intelligent].

소절이라함은 주어와 술어는 있으면서도 INFL이 없는 절을 지칭한다. 소절의 주어는 논항위치로서 의미역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의미역이 어떻게 배당되는가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종래 변형생성문법의 틀에서는 주절 동사와 소절의 술부가 재분석(reanalysis)에 의해 복합동사 (즉, held-responsible, made-leave, consider-intelligent)가 되어 him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지금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의미역 이론에서 본 의미역 기준(즉, 논항과 의미역의 일대일 대응관계)에는 부합되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을 여러 가지 문제로 요즘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 대신 주절동사 held와 소절의 술부들이 각각 따로 him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의하면 앞에서 다룬 의미역 기준은 “하나의 의미역 할당자( $\theta$ -assigner)는 하나의 의미역을 할당한다. 그러나 하나의 논항(argument)은 두개의 의미역을 받을 수도 있다”처럼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논의에는 소절의 문법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미루어 왔다. 문장의 기본구조(Base)가 NP INFL VP임을 감안할 때 소절처럼 INFL이 아예 없으면 문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절의 문법범주는 술부의 최대투사범주로 보아 [A<sub>phim</sub> [A:<sub>A</sub>[A<sub>responsible</sub>]], [v<sub>phim</sub> [v:<sub>v</sub>[v<sub>leave</sub>]]] 그리고 [A<sub>phim</sub> [A:<sub>A</sub>[A<sub>intelligent</sub>]]]처럼 표현된다.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x<sub>P</sub>Spec[x:<sub>x</sub>Head]]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지정어(Spec)위치에 가지고 있으며 술어를 핵으로 가지고 있다.

#### 2.4. 투사 원리(Projection Princi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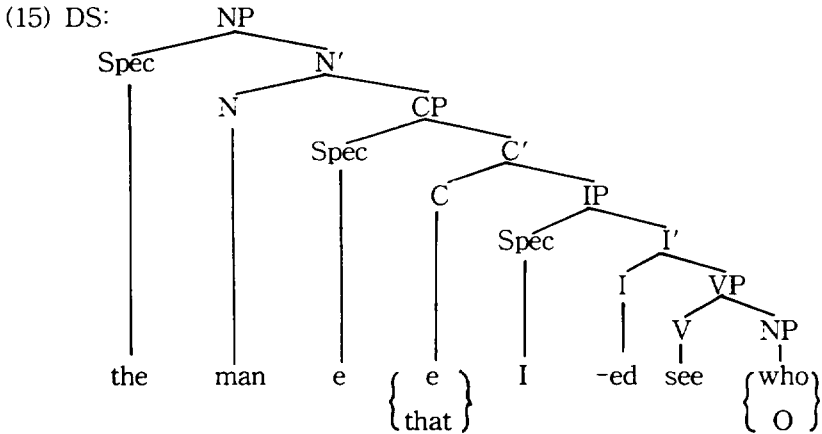
논항과 의미역 사이의 대응 관계를 규정하는 의미역 기준은 일견 다음 예에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 (14) a. The man who I saw  
 b. The man I saw



c. The man that I saw

동사 see의 의미역 격자( $\theta$ -grid)<sup>10)</sup>는 행위자(Agent)와 수동자(Patient)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14)의 모든 문장이 Agent인 I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내재적 의미역 Patient를 할당받을 수 있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타나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모두가 옳은 문장인 것은 순수 의미역 구조(즉, 동사의 의미역 격자가 조화된 구조)인 DS에서는 see의 보충어 위치에 (14a)의 경우 관계사 who가 있고, (14b,c)의 경우 음성가가 실현되지 않은 공운용자(empty operator:O)가 있어서 동사의 의미역 구조가 만족되기 때문이다. (14)를 수형도 상에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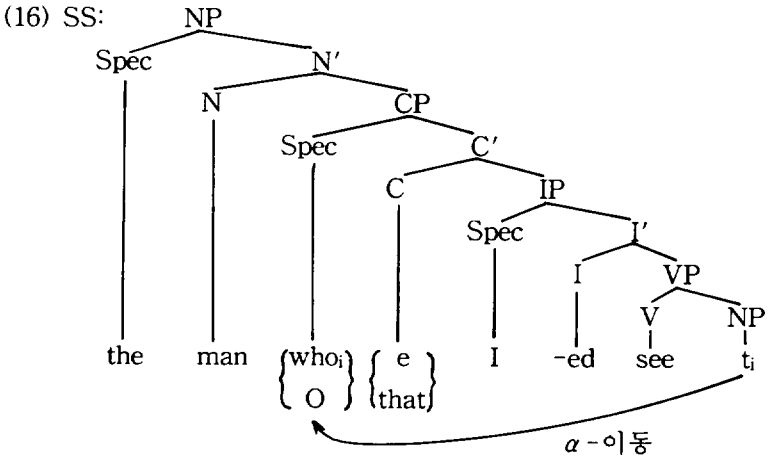


10) 의미역 격자는 동사의 논항 구조를 표시하는 어휘정보의 일부이며 이러한 어휘 정보는 모든 인간에게 생득적이다. 예를 들어, kill, smile, persuade의 의미역 격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a. smile : [+Agent-]
- b. kill : [+Agent-Patient]
- c. persuade : [+Agent-Goal Proposition]

이들 어휘들은 공통적으로 외재적 논항이 Agent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재적 논항의 선택에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즉, smile은 내재적 논항이 없고 kill은 Patient라는 내재적 논항을 가지며 persuade는 Goal과 Proposition이라는 내재적 논항을 가진다.

순수 의미역 구조인 (15)에 wh-이동이 일어나 who가 CP의 Spec으로 이동하고 보문어 C가 공범주로 남으면 (14a)가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관계사인 O가 CP의 Spec에 이동하고 보문어 C가 공범주로 남으면 (14b)가 되며, O가 CP의 Spec에 이동하고 C가 보문소 (complementizer) that으로 채워지면 (14c)가 된다. 이 과정을 다시 수형도상에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16)이 보여주듯  $\alpha$ -이동이 적용되면 이동된 요소는 자신과 동지표된 흔적을 반드시 남긴다. 그 이유는 어휘적 구조(동사 see의 경우 보충어를 택한다는 사실)가 모든 통사 층위(DS, SS, LF)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투사원리 때문이다.

- (17) 투사원리(Projection Principle): 어떤 어휘 항목(lexical item)의 어휘적 특성(lexical properties)은 모든 통사 층위 (DS, SS, LF)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Chomsky 1981, b)

지배-결속 이론의 (14)에 대한 설명은 전통문법의 설명과 다르다. 전통문법에서는 (14b)는 관계사 who의 생략으로 얻어진 문장이고 (14c)는 that가 관계사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지배-결속 이론에서는 이미 본 바와 같이 CP의 Spec에 나타나는 who는 관계사이나 CP의 핵인 C에 나타나는 요소 that은 if, whether, for 등과 같이 접속사일뿐이다. 그리고 (14b)처럼 관계사 생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DS에서 공범주이던 것이 SS에서 공운용자 O에 의해 채워졌을 뿐이다.

이처럼 Who가 관계사이고 that는 접속사라는 주장은 고대영어 및 중세영어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18) the man who that I saw

따라서 “최선의 가설은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는 가설이다”는 영가설(Null Hypothesis)에 따라 관계사 생략을 가정하지 않는 지배-결속 이론은 설명력(explanatory power)이 그만큼 높다할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투사 원리에 의해 wh-이동 후 빈 자리에 wh-흔적 즉 변항(variable)이 필요함을 보았다. 지배-결속 이론에서는 이처럼 음성가가 실현되는 가시 범주(overt category)로서의 NP외에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성가가 실현되지 않는 비가시 범주(non-overt category)로서의 NP를 더 설정하고 있다.

(19) a. 가시 범주 NP

(i) R(eferential)-expression: John, the man 등의 독자적 지시 개념이 있는 것

(ii) Pronominal: he, she, they, it 등의 대명사

(iii) Anaphor: reflexives, reciprocals

b. 비가시 범주 NP(Empty categories)

- (i) R(eferential)-expression: [-anaphor, -pronominal]  
예) variable
- (ii) Pronominal: [+anaphor, +pronominal] 예) Pro
- (iii) Anaphor: [+anaphor, -pronominal] 예) NP-trace
- (iv) Pronominalanaphor: [+anaphor, +pronominal] 예) pro

이처럼 지배-결속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wh-흔적 외에도 주요 공범주를 3개 더 설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투사 원리 또는 확대 투사 원리에 의해 요구되기 때문이다.

### 3. 핵계층 이론 (X'-theory)

#### 3.1. 평구조(flat structure)와 계층구조(Layered structure)

자연언어인 “water” 또는 ”물“은 보편적인 인공어를 이용하여 그 화학 구조식 H-O-H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구조식도 문법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언어의 구조식을 수형도 또는 표지붙은 괄호라 한다. 문법 기호 즉 문법 범주 (Grammatical Categories)는 Chomsky(1981) LGB에서 크게 4개로 나누어진다. Chomsky는 어휘범주(lexical categories) NP, VP, AP, PP만이 최대 투사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4개의 문법범주들은 공통적으로 핵을 반드시 포함한다.

- (1) a. NP -> ...N...
- b. VP -> ...V...
- c. AP -> ...A...
- d. PP -> ...P...

말하자면 이들 최대투사범주들은 핵(Head)을 중심으로 하는 내심적(endocentric)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NP, VP, AP, PP가 아무리 길어도 N, V, A, P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주요 문법 범주에서 부사구(AdvP)는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곧 부사는 스스로 핵(Head)이 되어 최대투사범주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부사구는 형용사구에 통합시킬 수 있는데, 그 근거는 Radford(1988;pp.138 - 141)가 밝히듯 대체로 형용사에 -ly를 붙여 부사를 도출할 수 있고,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으며(예, hard, fast, deep, etc.),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의 Premodifier가 very slow, very slowly에서 처럼 같을 수도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영어의 문장(S)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저 부분(Base Component)의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2) S → NP INFL VP (Chomsky,1981)

(2)의 INFL은 inflection을 뜻하며 I라 쓰이기도 한다. INFL에는 ±Tense와 성(Gender), 수(number), 격(case)으로 구성된 AGR (Agreement)이 포함되며 보조동사(Modal Auxiliaries)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Chomsky,1981;p.140) 그리고 NP와 VP의 내적 구성(internal structure)은 각각 핵인 N와 V의 성격에 따라 결정이 된다. 다음과 같은 문장의 VP를 예로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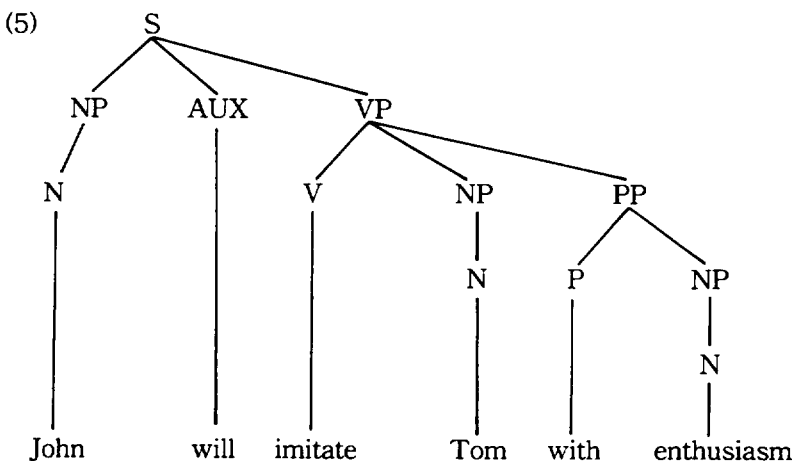
(3) John will imitate Tom with enthusiasm.

타동사 imitate를 핵으로 하는 최대투사범주 VP는 (3)이 보여주듯 핵인 imitate와 목적어 즉 보충어(complement) NP Tom 그리고 부가어(adjunct) PP with enthusiasm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사구(VP)를 구성하는 이들 성분들 중 앞에서도 밝혔듯이 V는 핵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NP는 동사 imitate이 타동사이므로 역시 필수적인 보충어가 된다. 말하자면 타동사 imitate는 보충어

NP만을 엄밀 하위범주로 택하므로 “John will imitate Tom (with enthusiasm)”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put은 imitate와는 달리 보충어 NP외에도 “John put the book (on the table)”이 말해 주듯이 PP는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하위 범주구분(Subcategorization)으로 어휘부에 포함된다.

- (4) a. imitate; V<sub>1</sub>[+ - NP]
- b. put; V<sub>1</sub>[+ - NP PP]

imitate와 put에 관한 하위범주 구분에서 ‘-’는 동사가 나타나는 위치를 의미한다. 결국 [ ]부분은 동사가 나타나는 환경이 되는데, 이 환경에서 주어는 배제된다. 그 이유는 주어진 어떤 동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동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범주 구분에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규칙 (2)에 따라 (93)을 수형도 상에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S의 직접 구성성분(immediate constituent)은 규칙 (2)에 의해 NP AUX VP로 이루어지고, VP의 직접구성성분은 V NP PP로,

PP의 직접구성성분은 P NP로 그리고 NP의 직접구성성분은 N으로 이루어진다<sup>11)</sup>. 그런데 VP의 직접구성성분중 PP는 imitate의 하위범주구분 (4a)에 따라 필수적이지(obligatory) 않고 선택적(optional)이다. 이들 구성성분들(N, AUX, V,P)에 어휘삽입(lexical insertion)이 이루어지면 (5)의 완전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5)의 수형도에서 VP의 구조는 평구조(flat structure)이다. 다시 말해서 VP의 구성성분들 V, NP, PP는 서로 같은 계층에 위치하면서 VP의 직접구성성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구조는 언어의 구조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즉 최대투사범주 VP와 핵 V사이에 중간투사범주인 V'가 설정되는 계층구조(layered structure)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중간투사범주는 동사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형용사구, 명사구, 전치사구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어휘범주 N, V, A, P는 다음 (6)와 같이 투사되며 (6)은 다시 간단히 (7)처럼 묶어 표현할 수 있다.

- (6) a. N → N' → N''
- b. V → V' → V''
- c. A → A' → A''
- d. P → P' → P''

- (7)  $\underbrace{X}_{\text{중간투사}} \rightarrow \underbrace{X' \rightarrow X''}_{\text{최대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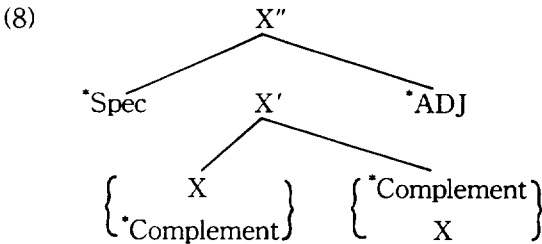
---

11) a. 구성성분(constituents): i)  $\alpha$ 가  $\beta$ 의 구성성분이 되려면  $\alpha$ 는  $\beta$ 에 관할되어야 한다.  
 ii)  $\alpha$   $\beta$ 의 직접구성성분이 되려면  $\alpha$ 는  $\beta$ 에 직접 관할되어야 한다.  
 iii) 어떤 절점들의 집합(a set of nodes)이 하나의 구성성분이 되려면 이들 절점은 하나의 공통절점에 남김없이(exhaustively) 관할되어야 한다.  
 b. 관할(domination): i)  $\alpha$ 가  $\beta$ 를 관할하려면  $\alpha$ 는 수형도 상에서  $\beta$ 보다 높이나 나타나야 하고 또한  $\alpha$ 는  $\beta$ 에 부단의 가지 집합으로 (by an unbroken set of branches)으로 연결되어(connected)있어야 한다.  
 ii)  $\alpha$ 가  $\beta$ 를 직접 관할하려면  $\alpha$ 는  $\beta$ 를 관할하고 또한  $\alpha$ 는  $\beta$ 에 단일 가지로 (by a single branch) 연결되어야 한다.

(7)에서 X'는 X 또는 XP에 해당하며, X는 어휘범주 N, V, A, P를 나타낸다.

### 3.2. 핵계층 식형(X'-Sch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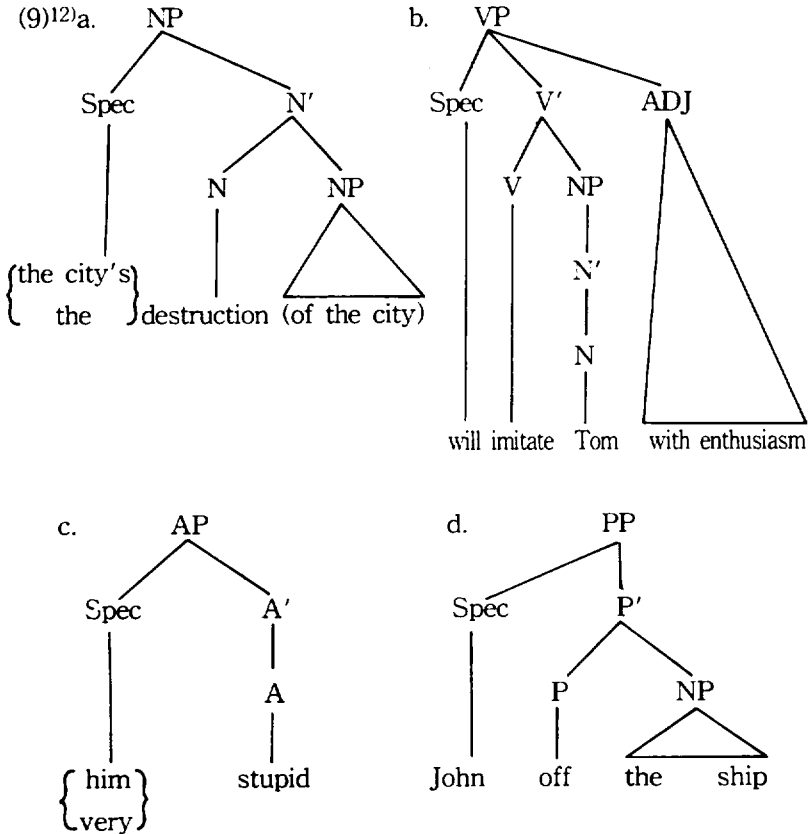
어휘범주 N, V, A, P는 그 특성에 따라 보충어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보충어를 필수적으로 택하기도 하고 수의적으로 택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사는 보충어를 취하지 않는 반면 타동사와 전치사는 필수적으로 취하고, 형용사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취한다. 그런데 구구조(phrase structure)에는 핵, 보충어 뿐만 아니라 지정어(specifier: Spec)와 부가어(Adjunct; ADJ)도 선택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비핵요소인 보충어, 지정어, 부가어와 핵의 결합은 모든 어휘범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의 핵계층 식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이론을 핵계층이론이라 한다.



핵계층 식형 (8)에서 보충어는 핵매개변항에 따라 핵의 오른쪽에 나타날 수도(예:English) 왼쪽에 나타날 수도(예:Korean)있으며 지정어는 중간투사범주 X'의 자매절점에 나타나고 부가어는 역시 중간투사범주 X'의 오른쪽 자매절점에 나타난다. 지정어는 X가 N일 때는 a, the, this, John('s)와 같은 요소를 가리키며, X가 A일 때는 양화사 two, three나 부사 또는 명사(소절(small clause)에서)를 가리키고 X가 전치사일 경우는 부사 well, across...또는 명사를 가리



킬 수도 있다. 그리고 부가어는 후치수식어(Postmodifier)로 with enthusiasm, today, tomorrow 등이 될 수 있다.



(9)는 4개의 어휘범주들을 핵계층 식형에 대입한 예들인데, 여기서 우리는 Spec은 구구조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9a)에서는 the city가 주어

12) 수형도에서 삼각형은 해당범주의 내적구성이 논의에 중요치 않으므로 자세히 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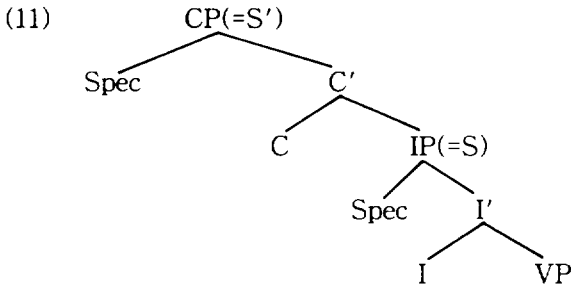
역할을 하고 (9c)에서는 him(예, I believe [him stupid])이 주어 역할을 하며, (9d)에서는 John(예, They pulled[John off the ship])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3.3 핵계층 이론과 S/S'

종래에는 (즉 Chomsky(1981)까지는) 비어휘범주(nonlexical categories) S와 S'는 핵계층이론상에 예외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별도로 설정했다.

- (10) a. S → NP INFL VP(=(2))  
 b. S' → Comp S  
 (예, I think<sub>S</sub>[Comp<sub>S</sub>that<sub>S</sub>John will imitate Tom]])

이 규칙은 화살표 왼쪽에 있는 기호(S와 S')를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기호로 다시 쓰라는 “다시쓰기규칙”(rewriting rule)인데, 오른쪽의 기호들은 왼쪽 기호의 직접구성성분(immediate constituents)이 되며, 이들 직접구성성분들 사이의 순서는 ‘왼쪽의 요소가 오른쪽의 요소를 선행한다’. 그리고 (10b)의 Comp는 절을 유도하는 요소(예를 들면 for, if, whether, that, wh-phrases)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로서 S'의 지정어 위치가 된다. 그러나 Chomsky(1986 b)에 오면서, 이들 S와 S'도 내심적 구조를 갖는다고 보고 어휘범주(N, V, A, P)와 마찬가지로 핵계층 식형에 포함시킨다. 즉 S는 INFL의 최대투사범주로 보아 IP(=Inflection Phrase)로 표시하고, S'는 보문어(Comp)의 최대투사범주로 보아 CP(=Complementizer Phrase)로 표시한다. 따라서 주요 문법범주는 6개(4개의 어휘범주(NP, VP, AP, PP) +2개의 비어휘범주(IP, CP)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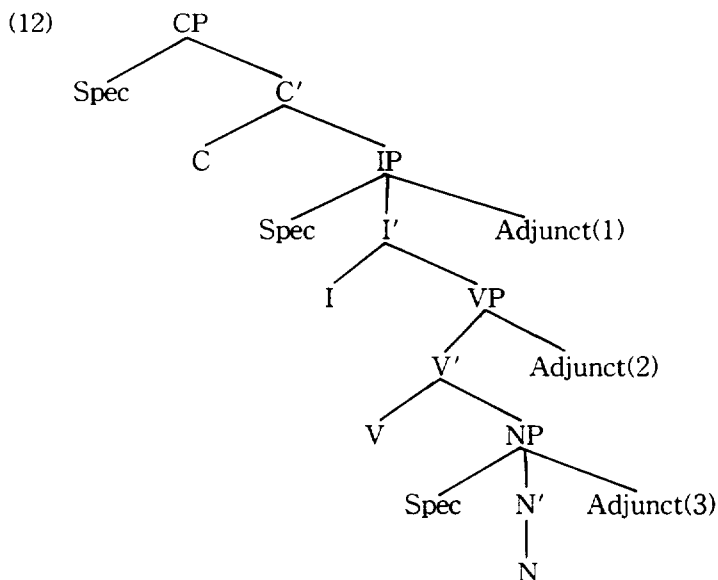


(11)에서 VP는 I(=INFL)에 의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충어이며(단, 핵과 보충어의 순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핵매개변항임) I의 최대투사범주 IP의 Spec역시 필수적인 범주로서 주어가 나타나는 위치이다. 따라서 주어는 핵계층 식형상에 반드시 나타나는 요소이므로 '절은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가 불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CP의 핵 C에는 [+Q]자질과 [+wh]자질이 있는데 [+Q]자질은 의문문에서 주어-동사도치(subject-object inversion)를 야기하고 [+wh]자질은 wh-구(wh-phrase)를 다시 CP의 Spec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C에는 보문어 for, if whether가 나타날 수도 있다. 종래에 Comp에 보문어 for, if, whether 외에 wh-구까지 나타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Comp는 CP의 핵으로 간주하고 CP의 Spec을 별도로 설정하므로써 보문어와 wh-구가 나타나는 위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IP와 CP를 설정하므로써 (10)과 같은 종래의 규칙은 불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10)의 규칙들은 (11)의 핵계층 식형에 흡수되어 버린다고 하겠다.

### 3.4 핵계층 이론과 문장의 중의성

지금까지 우리는 핵계층 상에 표현될 수 있는 6개의 문법범주가 설정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핵계층 이론의 가정으로 언어의 구조를 보다 명시적(explicit)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잇점을 얻는

다. 이런 명시적 설명은 이미 앞에서 문장의 주어가 IP의 Spec에 나타나는 요소라고 하는데서도 나타난 바 있는데, 다음 수형도가 보여주듯 부가어의 기능에 따른 위치의 변이에서도 적용이 된다.



해계층 식형에 동사의 특성이 투사됨으로써 저절로 얻어지는 (12)와 같은 언어의 구조식 즉 수형도에서 부가어(Adjunct)위치의 다양성은 자연언어 특징인 중의성(ambiguity)을 설명해준다 하겠다. 즉 부가어 NP를 수식하면 그 위치는 Adjunct(3)이고 VP를 수식하면 Adjunct(2)이며 문장전체를 수식하면(즉 문장 부사이면) Adjunct(1)이 그 위치가 된다. Adjunct(2)로도 Adjunct(3)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음 예문의 "in the garden"을 생각해 보자.

(13) The boy saw the girl in the garden.

(13)은 부가어 PP를 Adjunct(3) 위치에 있다고 보면 "정원에 있

는 소녀”를 만났다는 뜻이 되고 Adjunct(2) 위치에 있다고 보면 “그녀를 본 것은 정원에서”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12)같은 구조의 설정으로 언어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4. 결론

LGB(1981)출간 이후 GB이론이 장을 열면서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보편원리에 입각한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는 인간의 선천적 마음/정신을 과학화하여 자연과학적 인본주의(humanism in terms of natural science)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본학 또는 인간 탐구과학의 시대를 열고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효시가 되었으며 미래 학문의 기초를 마련했다.

GB이론이 종래의 생성-변형문법의 기본가설을 그대로 이어 받아 인간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명시적(explicit)으로 설명함을 문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고 함은 “언어능력”이라는 실체가 물리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실존함을 뜻한다. 즉 언어능력의 물리적 실체는 바로 대뇌의 언어, 중추신경체계 또는 그 신경세포들이라고 본다. “명시적 규명(explicit characterization)이란 객관적으로 정의된 형식적 체계(formal system)에 입각한 기술을 뜻한다. 체계적 이론이란 체계적 가설들로 이루어진다.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그 학문의 체계적 이론중에서 일부 가설이 수정될 수 있다. GB이론인 보편문법 원리는 이와 같은 가설로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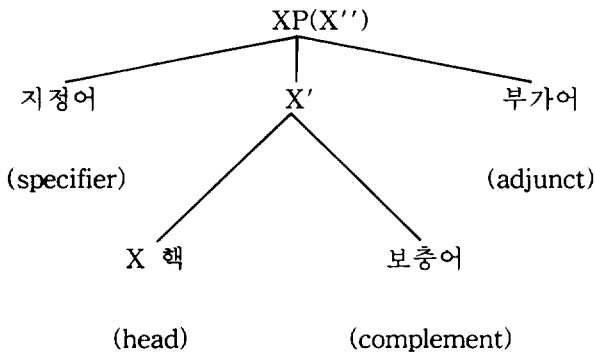
보편문법 기초가 되는 것은 의미역할(semantic role)과 그에 따른 통사범주(syntactic category)이다.

의미역이 표시되는 위치는 D-구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의 논항은 반드시 하나의 의미역만이 주어진다. 의미역은 생득적이면서 모든 인종에 공통되는 보편적인 것이다. 행위자(agent), 수혜자

(patient), 목적(object), 도구(instrumental) 등 다양하게 의미역이 분류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Chomsky(1986)는 의미적 정보(semantic information)와 통사적 정보(syntactic information)에 의하여 의미선택(S-Selection)과 범주 선택(C-Selection)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모든 문장의 핵심은 우선 의미선택이다. 의미선택이 이루어진 후 전형적 구조실현(canonical structural realization)이 되어 범주선택하게 된다.

범주는 어휘범주(Lexical category)와 비어휘범주(nonlexical category)로 나누는데 어휘범주는 [ $\pm N$ ,  $\pm V$ ] 자질에 근거하여 명사(+N, -V), 동사(-N, +V), 형용사(+N, +V), 전치사-후치사(-N, -V)로 구분하고, 비어휘범주는 시제(tense), 일치소(agreement elements), 양상(modals)을 포함하는 INFL과 보문소(Comp)로 구분된다. 이를 핵(head)으로 하여 문장의 구성소가 되는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범주인 명사구(NP), 동사구(VP), 형용사구(AP), 전치사-후치사구(PP), IP, CP가 된다. 이를 핵계층 식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언어능력은 원리의 체계(Systems of Principle)와 규칙의 체계(Rule Systems)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규명, 설명하려면 우선 언어의 구성소 연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의미역할(semantic role)과 어휘범주, 비어휘범주, 그들의 성격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Angluin, Dana. 1978. Inductive inference of formal languages from positive data. *Information and Control* 45:17-135.
- Atkinson, Martin. 1990.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 Representational and procedural issues. In *logical in language acquisition*, ed. Iggy M. Roca, 1-31. Drecht: Foris.
- Bach, Emmon. 1962. The order of elements in a transformational grammar of German. *Language* 38:263-269
- Baker, C. L. 1979. Syntactic theory and the projection problem. *Linguistic Inquiry* 10:533-581.
- Berwick, Robert C. 1985. *The acquisition of syntactic knowledge*. Cambridge, Mass.:MIT Press.
- Besten, Hans den. 1983. On the interaction of root transformations and lexical deletive rules. In *On the formal syntax of the Westgermania*, ed. Werner Abraham, 47-131. Amsterdam: John Benjamins.
- Bierwisch, Manfred. 1963. *Germmatic des deutschen Verbs*. Berlin: Akademie-Verlag.
- Borer, Hagit, and Kenneth Wexler. 1987. The maturation of syntax. In *Parameter setting*, ed. Thomas Roeper and Edwin Williams, 123-172. Dordrecht: Reidel.
- Borer, Hagit, and Kenneth Wexler. 1992. Biunique relations and the maturation of grammar principle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10:147-189.
- Brown, Roger, and Camille Hanlon. 1970. Derivational complexity and the order of acquisition of child speech. In *Cognition*

-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ed. John R. Hayes 53.  
New York: John Wiley.
-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1980.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syntactic  
theory. In *Explanation in linguistics: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 ed. Norbert Hornstein and David  
Lightfoot, 32-75. London: Longman.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1986a. *Barriers*.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1986b.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homsky, Noam. 1991. Some notes on the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Robert Freidin, 417-454.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The View from Building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ed. Kenneth Hale and  
Samuel Jay Keyser,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lark, Robin. 1989.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put data  
and parameter setting. In *Proceedings of NELS 19*,  
48-62.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Clark, Robin. 1990. *Papers on learnability and natural selection*.  
Technical Reports in Formal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No. 1, University of Geneva.
- Clark, Robin. 1992. The selection of syntactic knowledge.  
*Language Acquisition* 2:83-149.
- Cormen, Thomas H., Charles E. Leiserson, and Ronald L. Rivest.  
1990. *Introduction to algorithms*. Cambridge, Mass.: MIT  
Press.



- Diesing, Molly. 1990. Verb movement and the subject position in Yiddish.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8:41-80.
- Fodor, Jerry A. 1978. Computation and reduction, In *Perception and cognition: Issues in the foundations of Psychology*, ed. C. Wade Savage, 229-260.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rank, Robert, and Shyam Capur. 1993. On the use of triggers in parameter setting. 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Gold, E. Mark. 1967. Language identification in the limits. *Information and Control* 10: 447-474.
- Haegeman, Liliane.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xford: Blackwell.
- Haider, Hubert, and Martin Prinzhorn, eds. 1986. *Verb second phenomena in Germanic languages*. Dordrecht: Foris.
- Hamburger, Henry, and Kenneth Wexler. 1975. A mathematical theory of learning transformational grammar.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12: 137-177.
- Hoekstra, Teun. 1984. *Transitivity*. Dordrecht: Foris.
- Hoekstra, Teun. 1990. Markedness and growth. In *Logical issues in language acquisition*, ed Iggy M. Roca, 63-83. Dordrecht: Foris.
- Holmberg, Anders, and Christer Platzack. 1991. On the role of inflection in Scandinavian syntax. In *Issues in Germanic syntax*, ed. Werner Abraham, Wim Kosmeijer, and Eric Reuland, 93-118. Berlin: Mouton de Gruyter.
- Hyams, Nina. 1986.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theory of parameters*. Dordrecht: Reidel.
- Hyams, nina. 1987. The theory of parameters and syntactic development. In *Parameter setting*, ed. Thomas Roeper and Edwin Williams, 1-22. Dordrecht: Reidel.
- Jackendoff, Ray. 1977. *X' 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 Cambridge., mass.: MIT Press.
- Kayne, Richard S. To appear.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 MIT Press.
- Koopman, Hilda. 1983. *The syntax of verbs*. Dordrecht: Foris.
- Lightfoot, David. 1989. The child's trigger experience : Degree-0  
Learnabilit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321-334.
- Lightfoot, David. 1991. *How to set parameters: Arguments from  
language change*. Cambridge, Mass.:MIT Press.
- Lindley, D. V. 1965.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from a Bayesian viewpoint. Part 1: Prob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zini, M. Rita, and Kenneth Wexler. 1987. Parameters, binding  
theory, and learnability. *Linguistic Inquiry* 18: 413-444.
- Marcus, Gary. 1993. Negative evidence in language acquisition.  
*Cognition* 46:53-85.
- Niyogi, Partha, and Robert C. Berwick. 1993. Formalizing  
triggers: A learning model for finite spaces. A.I. memo  
1449, MIT, Cambridge, Mass.
- Nyberg, Eric H., 3rd. 1991. A limited non-deterministic  
parameter-setting model. In *Proceedings of NELS 21*,  
309-322.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Pinker, Steven. 1984. *Language learnability and language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oeppl, David; and Kenneth Wexler. 1993. The full competence  
hypothesis of clause structure in early German. *Language*  
69:1-33.
- Roberts, Ian. 1993. *Verbs and diachronic syntax*. Dordrecht:  
Kluwer.
- Thiersch, Craig. 1978. Topics in Germanic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